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건축도시공간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5대 박소현 소장 인터뷰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의 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새롭고 감사한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과 주변의 조언도 동기가 되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매우 원론적인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인 auri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왜 해왔는지 성찰해 보고 향후 10년을 그려 보는 일에 관심이 갔습니다.

2017년 겨울 개소 10주년 기념 포럼에서도 함께 확인하였듯이, auri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건축도시 관련 국가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본계획 정비 등 살기 좋은 건축도시환경의 토대가 될 정책을 세우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건축정책이라는 새로운 공공 체계로서 제반 제도를 마련하고, 빠른 시간 안에 건축정책과 실행의 중요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auri가 이뤄 낸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10년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10년을 넘기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점에 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에 기대어 일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auri가 해왔던
분야별 정책연구는
더욱 심화해 나가되
우리의 연구가
신기술·다학제·융합에
기반을 둔 지역공간서비스
연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새로운 10년의 비전, 핵심이 될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uri의 새로운 10년의 비전은 먼저 정책연구소로서 성찰의 깊이를 더해 국가건축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압축성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모델 아래에서 추구한 연구와 정책이나 사업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매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도시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건축도시공간 서비스가 필요한지 치열한 성찰에 기반 한 국가건축정책 어젠다 연구가 auri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환경 서비스 연구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활용도와 전략의 현실성을 구체화시켜 우리나라 건축정책연구 생태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국제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우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연구의 노하우와 성과를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해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세계화 연구 모델을 auri가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자 합니다.

auri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10년, auri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연구 환경의 안정화와 연구 인력의 내실화를 통해 연구자들의 일상생활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3 건축도시공간 분야는 우리 삶의 다양한 면과 얹혀 있는 만큼 다른 분야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auri가 해왔던 분야별 정책연구는 더욱 심화해 나가되 우리의 연구가 신기술·다학제·융합에 기반을 둔 지역공간서비스 연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uri가 표방하는 ‘좋은 건축’ 또는 ‘건강한 도시’의 실현은 결국 우리의 연구가 지역 현장의 공간 서비스로 융합·통섭되어 작동할 때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주거정책, 보행정책,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한옥 지원 연구도 상호 통섭하며 건축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과 부담가능하고 질 높은 주거, 원활한 이동환경, 균등한 경제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로 제공될 때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그 속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ICT·AI·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이 빠른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앞에 산재한 과제에 대해서 다학제적이고 다원적인 지역공간 서비스로 융합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또 이러한 해법의 제시가 실현 가능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정책연구는 우리 지역의 공간 이슈에 대한 해법을 우리의 작동 방식으로 성찰하여 풀어낸 후, 그 독자적 내용을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법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해외 연구소의 융합연구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민간-공공, 다학제, 다차원, 신기술 기반의 통섭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uri 역시 앞으로 새로운 10년에는 분야별 연계와 다학제 및 신기술이 기반이 된 융합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지역 건축도시공간 서비스 모델을 현실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콜로라도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조교수,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방문교수 등 해외에서 교편생활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의 세계화, 그 관점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세계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화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건축과 도시를 우리 사회의 체계 안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연구 노하우와 성과를 다른 세계의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의미 있는 세계화 연구 모델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의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s’ 프로그램은 auri의 향후 국제협력과 공동연구, 세계화 추진의 방향에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 시장이 재직하던 때,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s는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가로 설계 연구를 진행하여 획기적인 공간디자인 지침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s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모델을 구축한 후 뉴욕을 넘어 세계 도시의 가로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Global Street Design Guidelines>를 엮어 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 해법을 도출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문제를 연계하여 이 해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연구의 심화 방향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Global Street Design Guidelines>의 내용 자체보다, 자국 내 도시에서 시작한 해법모색 노력으로부터 세계 다른 도시의 가로 이슈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구체화 해낸 과정에 관심이 더 갑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할 때 해외 소위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의 지역 공간 이슈를 논의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구조에서 도출된 결과는 참고한 그 해외 사례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책연구는 우리 지역의 공간 이슈에 대한 해법을 우리의 작동 방식으로 성찰하여 풀어낸 후, 그 독자적 내용을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법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협력과 공동연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세계화의 핵심은 auri가 독자적인 연구 노하우를 개발하고 이것으로 세계 다른 도시의 수요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점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 분야에서 다소 공허하게 외쳤던 연구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는 왜, 어떻게 다른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자주 회자되는 북미와 유럽 연구소들의 도시공간 연구 성과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의 밀도·용도·교통·IT인프라가 품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auri 연구자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고려하면 국제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건축도시공간 연구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은 auri가 더욱 크다고 자부합니다.

5 건축도시 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운영방침은 무엇입니까?

비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뿐 아니라 여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수한 정책연구의 심화일 것입니다. auri도 건축도시공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에 주로 집중하며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축도시정책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연구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의 수월성과 독립성·자율성·사회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수월성은 ‘auri 정책연구의 고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제시할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정책연구의 수월성은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학술평가(Scholarly evaluation)의 구조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구력 강화와 이를 위한 여건 형성을 위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자율성·사회성은 상호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서 정부 정책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auri 역시 정부 정책의 대리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견제와 비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견제와 비평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외부 여건 조성에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 속에서 연구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연구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감으로써, 정책연구와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auri의 정책연구는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6 앞서 강조하신 연구의 수월성이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연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일도 있을 듯합니다.

auri의 비전은 국민 행복과 품격 있는 건축도시문화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행복’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많은 보수와 대가를 받는 것만이 이 시대 젊은 연구자들의 행복 조건은 아니겠지만, 이를 제외하고 행복 조건을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연구소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리고 관련 외부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구 환경의 안정화와 연구자의 내실화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국책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소인 auri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건축과 도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 초 뉴욕에서 생활하며 경험했던 것은 조금 부러웠습니다. 여느 학자나 연구소가 발간한 도시에 대한 설명서가 뉴욕타임스 서적리스트에 오르고, 동네 작은 독립서점에서 주민들에게 팔리고 읽히며, 저자가 직접 초대되어 지역 독서회가 열리는 풍경이 신선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국민 행복과 품격 있는 건축도시문화가 실현된 우리 사회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저는 auri 연구자들이 그간 고민해 온 지식 내용이 납득이 가는 도시 설명서가 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읽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점점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일반인들이 우리의 연구결과를 삶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기반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10년, 성장하는 연구, 설명이 되는 연구를 통해,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의 실현에 부단한 노력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발걸음에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질책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uri 연구자들이 그간 고민해 온 지식 내용이
납득이 가는 도시 설명서가 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읽히는 날을 기대합니다.